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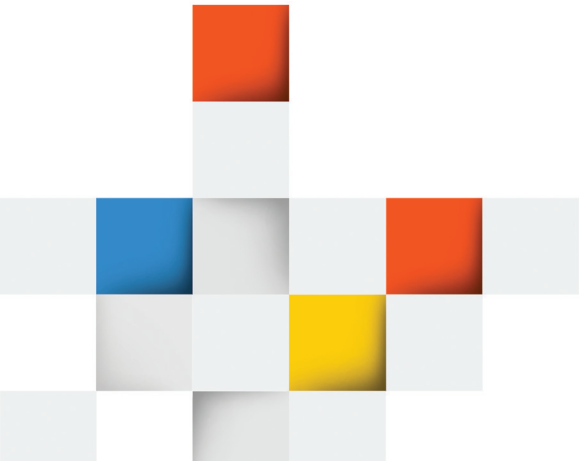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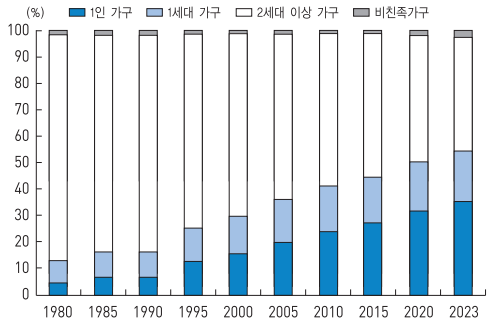
해방 후 ~ 1960년대	1970년대 ~ 198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농촌 기반 대가족 사회	도시 핵가족화	결혼과 이혼의 급격한 변화	결혼 감소와 1인 가구 급증

[시대별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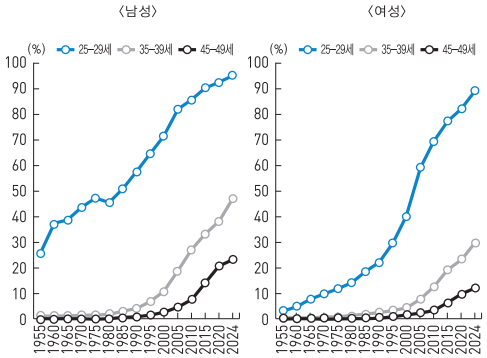
- **(해방 후~1960년대)** 한국 가족은 농촌에 분포한 친족가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구원 수도 평균 5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가족이었다.
- **(1970년대~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도시의 새로운 가구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다. 자녀 수도 감소하면서, 가구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 **(1990년대~2000년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과 달리,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혼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
- **(2010년대~현재)** 1인 가구가 더 늘어났으며,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초혼연령도 대폭 상승했다. 결혼과 출산의 감소와 더불어, 태도 측면에서도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비율이 상승했다.

[주요 지표]

일반가구의 가구구성 변화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 변화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이 글에서는 가구구성, 가족 형성과 해소, 가족 가치관 등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구성(가구구조)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수나 세대 수 등으로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기 때문에 가구의 구성은 가족의 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가구구성이 정태적인 가족의 특성을 보여준다면, 가족을 만들거나 가족(혼인)을 해소하는 사건들은 가족의 동태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가족은 자녀 출산을 통해 확대되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족의 시작은 결혼을 통한 부부의 형성이다. 결혼이나 이혼의 증감,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연령 등의 시점은 시대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다. 가족의 외형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성원 사이에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 권리 등의 성격도 바뀌어 왔다. 가족 가치관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러한 관계적 속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 글의 접근은 긴 시간에 걸친 사회적 변화를 요약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자칫 가족의 변화를 야기한 맥락을 놓치게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성장, 1997~1998년 경제위기 전과 후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불안정화 등과 같은 거시구조적 변화, 그리고 민주화와 자유화 같은 정치, 문화적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가족의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참조한 주요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사회조사」이다.

가구구성의 변화

산업화와 핵가족 증가

해방 이후부터 가구·가족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구의 규모(가구원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세대의 수도 매우 단순해졌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의 결과가 드러나는 1970년대 전까지, 친족가구의 약 90% 이상이 2세대 또는 3세대 가구였으며, 평균 가구원 수도 5.2명으로 대규모를 이루었다. 그러나 3세대 가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95년이 되면 전체 일반가구의 10%에 불과하게 된다. 대신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 또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부상했다. 이른바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표 Ⅱ-1).

2000년 이후에도 평균 가구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4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995년 12.7%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24년에는 36.4%까지 치솟았다. 반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가구의 약 60~70%를 차지했던 2세대 가구의 비율은 40.1%까지 줄어들었다. 그 결과 1인 가구는 2세대 가구(핵가족)만

큼이나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표 Ⅱ-1). 2000년 이후의 가구구성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세대구성, 1970-2024

연도	평균 가구원 수	세대별 구성 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70	5.2	-	6.8	70.0	23.2	-
1975	5.0	4.2	6.7	68.9	20.2	-
1980	4.5	4.8	8.3	68.5	17.0	1.5
1985	4.1	6.9	9.6	67.0	14.9	1.7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2024	2.2	36.4	19.4	39.8	2.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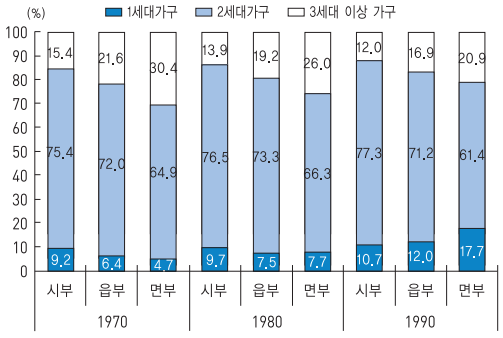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일반가구(친족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 비친족가구)를 기준으로 함. 단, 1970년은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친족가구가 제외되었고, 1975년은 5인 이하 비친족가구가 제외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시기에 따라 가구 규모의 축소를 야기한 사회적 힘은 달랐다. 1970~1990년 사이 가구의 크기가 작아진 이유는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을 자극한 산업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되기 전까지, 한국 가족은 곧 농촌의 농민가족이었다. 농민가족은 결혼한 자녀가 곧바로 분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부모가족과 함께 살거나, 한 명의 자녀(주로 장남)가 가계를 계승하였다. 1970년 전체 가구 중 23.2%가 3세대 이상 가구였던 것은 이러한 세대 간 동거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표 Ⅱ-1).

산업화 시기 농민가족은 대가족 전체가 도시로 이주하는 방식보다는 구성원 중 일부만 도시로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주로 10대, 20대 남녀 자녀들이 이농자들이었다. 부모세대는 생활 기반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잔류하였고, 서너 명 이상의 자녀 중 일부는 남고 일부는 떠났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이촌향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3세대 이상 대가족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고, 가구 규모의 축소는 젊은 노동력이 집중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Ⅱ-1]에서, 젊은 인구가 몰려든 1970년의 도시에서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는 15.4%에 불과했지만, 농촌(면부)은 여전히 30.4%가 3세대 이상의 가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 농촌에서도 3세대 이상 가구는 20.9%로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그림 II-1] 도시와 농촌의 가구 세대구성, 1970-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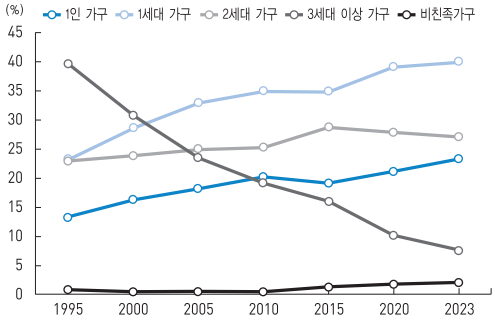
주: 1) 친족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구는 증가한다. 농촌에 남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에 1세대 또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컸던 도시에서는 1980년을 거쳐 1990년이 되자 3세대 이상 가구는 더 줄어들었고 2세대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핵가족이 널리 확산되었다.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고령의 부모세대는 장년의 자녀세대에게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돌봄 등을 기대할 수 있었다. 3세대 이상 가구의 전반적인 감소는 세대 간 동거를 통해 노인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쇠퇴하였음을 의미한다. 가구가 아닌 개인의 비율은 이러한 변화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그림 Ⅱ-2).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39.7%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자녀세대와 동거하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5년에는 23.5%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에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995년 23.3%에서 2023년 40.1%로 증가했으며, 노인 1인 가구는 13.3%에서 23.3%로 늘어났다.

[그림 II-2]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형태, 199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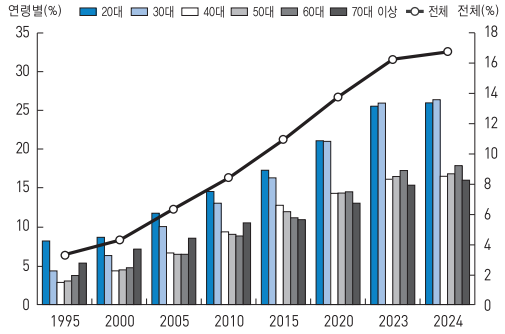
주: 1) 가구가 아닌 가구원(개인)의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인 가구의 급증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졌다. 1995년 12.7%에서 2023년 35.5%로 급증한 것이다(표 Ⅱ-1). 이렇게 급증한 요인에는 연령집단에 따른 1인 가구 비율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1인 가구라고 하면 여성 고령자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1인 가구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늦은 결혼과 비혼으로 인해 성인기 초기에도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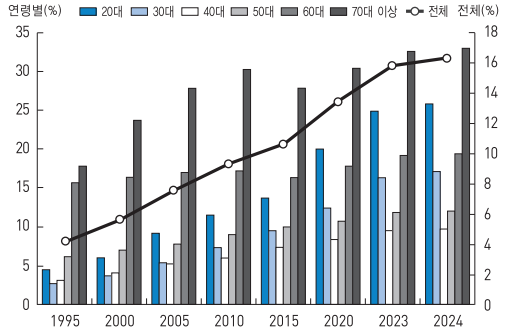
[그림 Ⅱ-3]과 [그림 Ⅱ-4]를 보면, 1995년에는 여성 고령자의 1인 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20대 남성과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5년 이후로는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뿐만 아니라 40대와 50대의 1인 가구 비율도 상승해 왔다. 이들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여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율과 차이가 미미할 정도로 높아졌다. 2023년 현재에도 70세 이상 여성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지만, 20대와 3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의 1인 가구 비율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림 II-3] 남성의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1995-2024



주: 1)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별 일반가구원을 1인 가구 수로 나눈 수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II-4] 여성의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1995-2024



주: 1)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별 일반가구원을 1인 가구 수로 나눈 수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족을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관계라고 본다면,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 간의 자원공유와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로 산다는 것은 가족의 적절한 지원과 보살핌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 가족생활의 특징 중 하나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수와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함께 살지 않아도 친밀성과 경제적 연대 등을 밀접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빈번한 만남, 연락, 경제적 자원 이전과 돌봄 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대적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관계를 꾸려가는 실제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이혼의 변화

결혼의 감소와 만혼화

20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었다. 〈표 Ⅱ-2〉와 〈표 Ⅱ-3〉은 연령별 미혼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거의 전부가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결혼연령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다. 근대적인 노동시장의 발전으로 결혼 전에 개인적인 직업을 갖게 된 것, 교육 기간이 길어진 것 등으로 20세기 후반에 결혼연령이 상승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미혼율 상승은 근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근대화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는 20대와 30대를 미혼 상태로 보내

〈표 Ⅱ-2〉 남자의 연령별 미혼율, 1955-2024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55	94.4	67.1	25.4	4.7	1.1	0.6	0.4
1960	99.0	86.5	37.2	4.7	0.9	0.3	0.2
1966	99.4	90.0	38.4	5.3	1.0	0.3	0.2
1970	99.7	92.6	43.4	6.4	1.2	0.4	0.2
1975	99.7	92.9	47.0	7.0	1.4	0.5	0.3
1980	99.8	93.1	45.2	7.3	1.7	0.7	0.4
1985	99.9	94.4	50.7	9.4	2.7	1.1	0.6
1990	99.9	96.4	57.3	13.9	3.8	1.5	0.8
1995	99.8	96.3	64.4	19.4	6.6	2.7	1.3
2000	99.7	97.5	71.0	28.1	10.6	4.9	2.4
2005	99.8	98.2	81.8	41.3	18.4	8.5	4.5
2010	99.7	98.8	85.4	50.2	26.7	14.4	7.5
2015	99.8	98.8	90.0	55.8	33.0	22.5	13.9
2020	100.0	99.2	92.2	65.9	37.8	27.2	20.5
2024	-	99.6	95.0	74.7	46.8	30.1	23.1

주: 1) 미혼율=(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미혼자 수÷해당 연령집단 별 내국인 수)×100.
2) 2024년은 등록센서스 자료에서 산출함.
3) 1960년의 조사 연령 기준은 세는 나이임. 그 이외는 만 나이임.
4) 2024년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Ⅱ-3〉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1955-2024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55	85.2	20.8	3	0.7	0.3	0.3	0.2
1960	97.4	48.9	4.8	0.6	0.2	0.1	0.1
1966	96.1	51.6	7.7	1	0.3	0.1	0.1
1970	97.1	57.2	9.7	1.4	0.4	0.2	0.1
1975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98.2	66.1	14.1	2.7	1	0.5	0.3
1985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99.5	80.5	22.1	5.3	2.4	1.1	0.6
1995	99.2	83.3	29.6	6.7	3.3	1.9	1
2000	99.3	89.1	40.1	10.7	4.3	2.6	1.7
2005	99.6	93.7	59.1	19	7.6	3.6	2.4
2010	99.6	96	69.3	29.1	12.6	6.2	3.3
2015	99.8	96.8	77.3	37.5	19.2	11.3	6.4
2020	99.9	98	82	46	23.3	14.7	9.8
2024	-	98.9	89.2	58	29.9	17.9	12.2

주: 1) 미혼율=(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미혼자 수÷해당 연령집단 별 내국인 수)×100.
2) 2024년은 등록센서스 자료에서 산출함.
3) 1960년의 조사 연령 기준은 세는 나이임. 그 이외는 만 나이임.
4) 2024년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는 사람, 나아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을 보면, 40대 초반의 남녀 미혼율이 1%도 되지 않았으며, 20대 초반의 미혼율이 여성은 20.8%, 남성은 67.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에 차이가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45~49세 미혼율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1%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이동이 활발했던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문화는 유지되었다. 다만, 20대와 30대의 미혼율이 계속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초혼연령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혼인 지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1990년 57.3%에서 2000년 71.0%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22.1%에서 40.1%로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 더욱 심화되어 2020년에는 20대 후반 남성의 미혼율이 92.2%까지 치솟았으며, 여성도 82.0%까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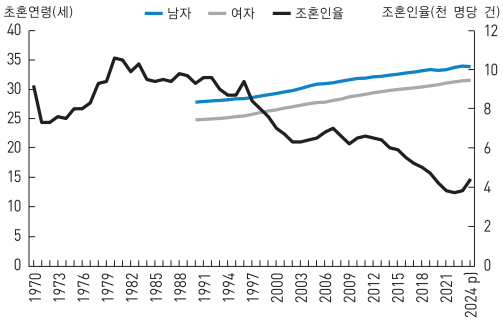
미혼율은 20대와 30대뿐만 아니라 40대에서도 증가했다. 2000년에 40대 후반의 미혼율은 남성이 2.4%, 여성이 1.7%로 이미 1%를 넘어섰

으며, 2024년에는 각각 23.1%와 12.2%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의 조혼인율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에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Ⅱ-5). 이후 조혼인율은 2010년대 중반에 다시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의 영향하에 있던 2020~2021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2022년 이후에 약간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더 극적이다.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2024년에는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미혼율이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진 데에는 교육 수준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평균 초혼연령이 남녀 모두 30대로 크게 상승한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학력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에 부합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은 높지 않다. 경력이 짧은 진입 초기자의 노동시장 지위와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도 결혼을 미루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도록 만든다. 즉 초혼연령 상승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제도, 노동시장 구조, 성역할의 변화 등에서 나온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이 확산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II-5] 조혼인율과 평균 초혼연령, 197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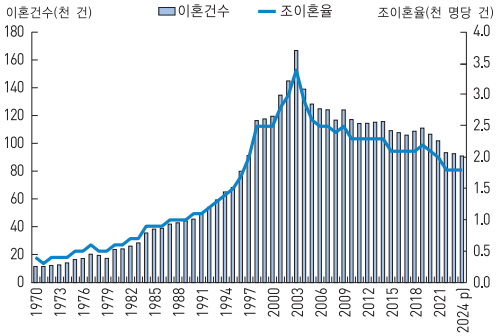


주: 1) 조혼인율=(혼인 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경제위기, 황혼이혼

1980년대까지 이혼은 흔치 않았다. 1970년 이래로 조이혼율은 증가했지만 인구 1천 명당 한 건 정도에 불과했다(그림 Ⅱ-6). 그러나 조이혼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 1.7건으로 늘어났고, 2003년에는 3.4건까지 치솟았다. 1997~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 사업실패 등의 급증이 가족에게 이혼

[그림 II-6]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 1970-2024



주: 1) 조이혼율=(이혼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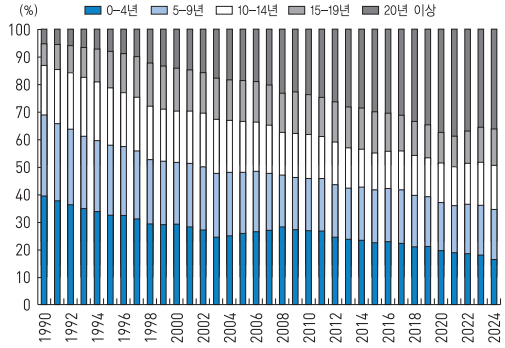
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조이혼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1980년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았고, 2024년 1.8건으로 조사되었다.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도 2014년 4.8건에서 2024년 3.7건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4년 혼인·이혼 통계).

1990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이혼은 결혼 후 4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었고, 15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그림 Ⅱ-7).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전체 이혼 중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기 이혼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에는 결혼 경과 연수 15~19년의 이혼 비중이 7.9%, 20년 이상이 5.2%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몇몇 시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1.1%와 38.7%로 증가했다. 그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결혼 경과 연수가 긴 부부의 이혼은 고령자의 이혼을 의미한다. '황혼이혼'으로 가시화된 이러한 변화는 이혼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실천이라거나 결혼 초기 적응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다는 통념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혼인 지속 기간이 대폭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부양과 돌봄의 책임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혼이 노년기에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이혼의 발생이 단지 결혼 초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20년 이내 전 기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 지속 기간이나 자녀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이혼의 허용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혼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모든 결혼 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7]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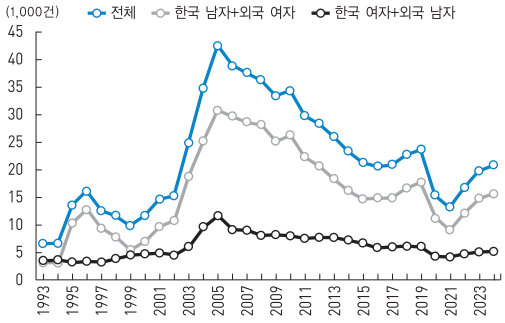
주: 1) 미상은 제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00년대 국제결혼의 폭증과 다문화가족

2000년대 결혼, 이혼의 변화 추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단지 결혼, 이혼의 양적 증감만이 아니다. 그중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폭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농촌 남성 또는 도시 하위 계층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는 이른바 다문화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국제결혼 건수가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곧 이은 경제위기 기간에 주춤한 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만 5천 건에서 약 4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다(그림 Ⅱ-8). 2000년대 초와 같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시기도 있었지만, 전 기간을 통틀어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결혼이 주도했다.

[그림 II-8] 국제결혼 건수, 1993-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가족 가치관과 가족관계

노인 부양과 성역할의 탈전통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족 중심적인 사회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배경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의 부양 기능이다. 가족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 여성,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가족의 부양 역할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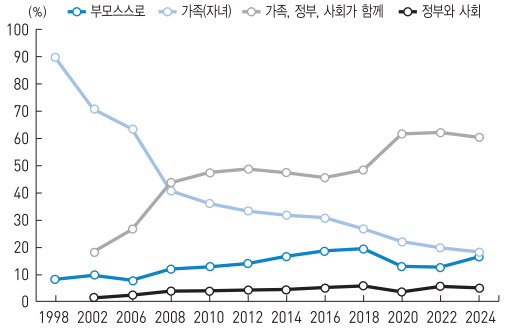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사회의 전 영역이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20세기 동안, 가족 책임을 둘러싼 전통적인 가치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 의식이 대표적이었다. 다만, 자녀 중 누구에게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태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장남에게 부과했지만, 이미 1990년대가 되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특정 자녀에게 있지 않고 고르게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확산되었다(국가데이터처, 1998).

이러한 변화를 시작으로 부모 부양 의식은 200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다. 부양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은 줄어든 반면, 가족, 사회, 정부가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태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그림 Ⅱ-9). 특히 2006년 약 60%에 달했던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계속 감소해서 2024년에는 18.2%로 떨어졌다. 반면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6년 26.4%에서 2024년 60.3%로 증가했다. 노후 부양의 책임이 부모 스스로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도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노후 부양은 가족의 일방적 책임이 아닌 가족, 정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고령자의 가구구성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 고령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동거가 급격히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다. 세대 간 분거가 규범이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자녀)에게만 부양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후사회보장 제도의 발전도 이러한 부양의식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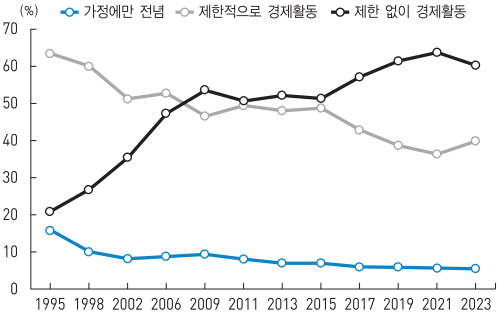
[그림 II-9]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1998-2024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 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1998년은 부모 스스로와 가족(자녀)의 응답률만 표시하고, '정부 등 기타' 응답률은 표시하지 않음. 모든 연도에서 '기타'는 제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도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림 Ⅱ-10]을 보면, 이미 1990년대 후반,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했고, 결혼한 여성도 어떤 형태로든 가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태도가 대세가 되었다. 쟁점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사 및 양육 등 전통적 성역할과 어떻게 양립해야 하는가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 출산, 돌봄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봄이나 가사로 인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9년에는 53.5%를 차지했다. 한동안 어느 한 쪽도 우세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5년 이후 여성의 제한 없는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태도가 다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이 비율은 2021년까지 상승한 후 최근 소폭 하락했다.

[그림 II-10]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1995-2023



주: 1) 1995~2009년까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결혼과 이혼, 규범에서 선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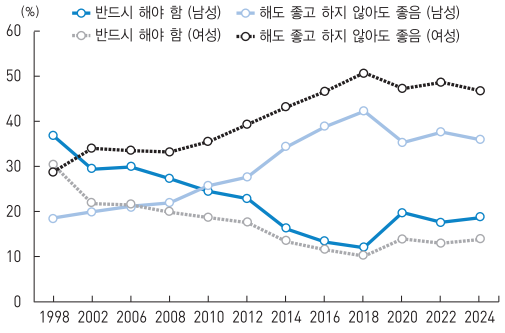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범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였고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다. 이혼은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결혼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선택성이 강화되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성도 커졌다. 결혼과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주관적 가치관만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한다는 관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결혼과 이혼의 경험과 해석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결혼의 선택성을 지지하는 비율은 2018년까지 상승해 왔다(그림 Ⅱ-11). 이러한 추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매 시기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의 당위성을 더 많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8년 이후 결혼에 대해 선택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이전의 추세와 달리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 사회의 하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2018년 이후 추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부정적 태도가 오히려 강화되었지만, 2006년 59.9%에 이르렀던 부정적 태도 비율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 44.4%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26.6%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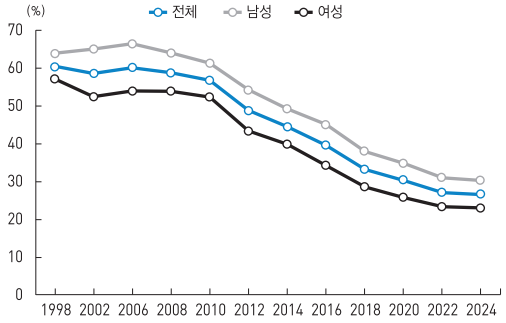
[그림 Ⅱ-11]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24



주: 1) 199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6개 항목의 응답 중 '반드시 해야 한다'를 당위적 태도로 간주하고 '해도 좋고, 하지 않다도 좋다'를 선택적 태도로 간주함. 나머지 4개 항목('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은 제시하지 않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Ⅱ-12]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1998-2024



주: 1) 199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어떤 이유라도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로 측정함. 여기에서는 앞의 두 개 항목을 부정적 태도로 간주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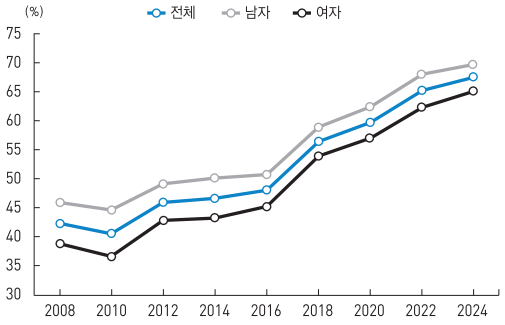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범적 태도는 남성이 더 강하고,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적 태도는 여성이 더 강하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비혼 동거율이 약 2~3%에 불과하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8년 42.3%에서 2024년 67.4%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8년에는 남성의 45.9%가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데 반해, 여성의 동의율은 38.8%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남성의 69.7%, 여성의 6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은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20대와 30대는 이미 2008년 조사에서도 61.1%와 54.2%가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같은 해 조사에서 40대 이상의 동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연령집단 간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4년 20대와 30대는 각각 81.0%와 80.4%가 비혼 동거에 동의했지만, 60대 이상의 동의율은 50.0%, 50대는 65.0%로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대에서 50대 사이의 격차는 최근 들어 상당히 좁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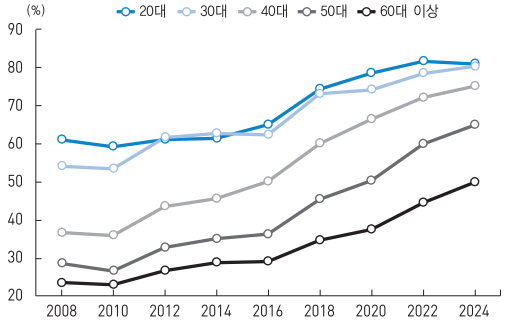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선택적 태도,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서 최근에는 비혼 동거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혼 동거

[그림 Ⅱ-13] 성별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08-2024



주: 1) 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문항에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 응답률을 합하여 긍정적 태도로 간주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Ⅱ-14] 연령별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08-2024



주: 1) 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문항에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 응답률을 합하여 긍정적 태도로 간주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1)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19~49세 성인 남녀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은 전체의 2.4%로 조사됨(박종서, 장인수, 최선영 외, 2023).

에 대한 동의율의 추이는 만혼과 비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난 2010년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대한 양호한 만족 수준

다음 〈표 Ⅱ-4〉는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심인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최근 한국 가족에서 부부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여타 가족 간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비율은 2008년 48.9%에서 2024년 58.9%로 상승했다. 연령별 태도를 살펴보면, 주로 30대 이상에서 부부 중심적 태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부부 중심적 태도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결혼에서 부부 중심성에 대한 태도, 200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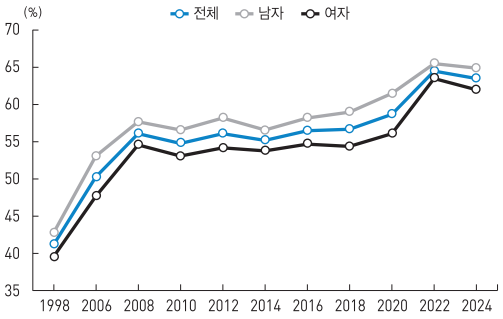
(%)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8	48.9	54.4	52.0	48.4	44.8	42.3
2010	49.8	52.8	53.4	51.9	45.8	42.2
2012	50.5	54.3	55.3	53.1	47.5	41.8
2014	46.9	52.1	49.4	48.9	43.7	39.8
2016	47.9	54.7	50.2	49.9	46.3	40.2
2018	51.5	59.2	55.3	54.9	48.8	41.9
2020	49.4	56.8	52.8	53.5	48.0	40.2
2022	56.6	58.7	64.3	59.7	57.9	49.9
2024	58.9	60.2	65.9	63.3	60.4	53.5

주: 1) 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연령집단 중 15~19세 또는 13~19세는 제외함.
3)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한 응답률('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마지막으로,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전체 만족률이 50%를 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Ⅱ-15). 1998년에는 남녀 모두 약 40%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약 50% 수준으로 상승한 후 2008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확인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률이 높았고, 특히 2016년 이후 만족률이 크게 상승한 후 최근 미미하게 하락했다.

[그림 II-15] 성별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 199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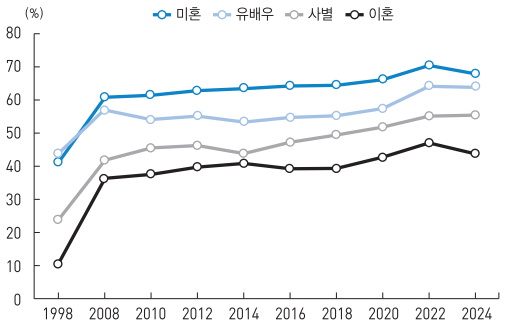
주: 1) 199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만족'+'만족'의 응답률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률은 성별뿐만 아니라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Ⅱ-16). 대체로 미혼의 만족률이 가장 높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사별, 이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미혼보다 유배우자의 만족률이 근소하게 높았던 1998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혼인상태에서 만족률이 대체로 상승하여, 앞서 살펴본 성별에 따른 패턴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인 가족관계 만족률은 해석할 때 다음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관계 만족률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실제 가족관계가 개선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 이외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위축된 결과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가족관계 만족률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친구, 동료 등과의 접촉이 크게 줄어들었던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률의 전체 평균값은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지만, 세부 집단에 따라 만족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II-16] 혼인상태별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 1998-2024



주: 1) 199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만족'+'만족'의 응답률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해방 이후 한국 가구·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가구의 외형적인 축소이다. 가구의 세대구성이 1세대와 2세대로 단순해졌으며, 가족 또는 타인과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과 이혼 등에서 당위적인 규범의 힘은 약해지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강해졌으며, 개인들의 가족 관련 실천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규모, 변화를 야기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비혼 인구나 1인 가구 등 30~40년 전에는 극히 드물었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개인의 지향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자율성이 커진 결과라고만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온 결혼의 선택성에 대한 지지율, 일과 가족의 관계에서 일을 중시하는 여성의 태도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정체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규범이 약해지고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젠더)이나 계층에 따른 조건의 격차도 여전히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면에, 삶에 대한 개인의 주도권이 진정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종서, 장인수, 최선영, 임지영, 계봉오, 유삼현. 2023.「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 1998.「1998년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3.20. 2024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